

아시아인 노인 자살률 최고...10만명당 7.95명...내달 예방 워크숍



24일 헨터칼리지 아이린 청 교수가 아시아인 노인 여성들의 자살 충동과 심리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한인정신건강협회(회장 손해인)가 오는 10월 28일 오전 10시30분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플래싱 경로회관에서 자살 예방 워크숍을 연다.

이번 워크숍은 아시아아메리칸연맹과 해밀턴매디슨하우스, 뉴욕아시아아메리칸정신건강연대 등이 합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아시아인 노인 여성 자살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워크숍을 기획한 이들 단체는 24일 설명회를 갖고 아시아인 노인 여성 자살 방지를 위한 워크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신우 소셜워커는 “한인사회에 노인 자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행사”라며 “위험요소, 사례별 조사 내용 등이 소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질병통제센터(CDC) 통계에 따르면 74세 이상 노인 여성 10만명당 자살 비율은 백인 4.18명, 흑인 1.18명인 반면 아시아인은 7.95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린 청 헨터칼리지 사회학과 교수는 “외로운 아시아인 노인은 가족에게 짐이 된자는 강박관념에 빠져 자살을 시도한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익숙치 않은 아시아인의 특성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